

만해 스님 탄생지 홍성서도 기념사업

홍성문화원 '만해 스님 기념사업회' 준비위 구성

만해 스님의 탄생지인 충남 홍성에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이 추진된다. 불교계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에 이은 지역 사회의 만해 스님 선양사업 동참이다.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은 4월 22일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해기념사업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나라사랑정신과 문화세계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홍성문화원은 이를 위해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불교계 인사, 정계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로 범국민적인 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1차 준비위원회는 지역내 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기념회 사업으로는 △만해 학술발표회의 매년 개최, △만해학보 발간, △생가지에 건립된 만해체험관 활성화 사업, △지역학생을 대상으로한 장학사업 △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제 개최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교와 문학, 독립 3개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장기적으로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진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를 고향인 홍성 결성면 성곡리 생가지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3차례 확대회의를 거쳐 정관을 마련하고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5월 말까지 만해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만해 스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군은 만해문학체험관을 건립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 5회에 걸쳐 만해 체험관과 생가 일원에서 생가 탐방 후 다도와 참선 등 불교 전통을 체험하는 '만해체험관 구축구석- 불교식 전통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만해 시낭송회 등 문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심우장·백담사·만해마을 등을 돌

홍성문화원, 22일 준비위원회 발족 학술대회·학보 발간·장학사업 진행 망우리 만해 묘소 이전도 과제 제시

아보는 '만해문학기행'도 연3회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간혹 만해 스님이 홍성 출신인 것을 모르는 분자들도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해 만해 스님을 배출한 고향으로 그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홍성에 자리한 만해 스님의 생가 모습. 기념사업회는 묘소도 생가 인근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익산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농사를 지으며 수행에 매진하며 선농일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4월 29일 前김용사 주지 자광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33선지식 초청법회의 3번째 법회인 이날 법회에는 익산 전주의 불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광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자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부처님께 귀의하면 복덕이 절로 증장돼 하는일이 절로 풀려 행복해진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세살살이, 인생살이에 무심할 줄 알면 지혜가 나날이 증장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탐사, 자비의 쌀 1,000kg 전달

신비의 영산으로 알려진 진안 마이산의 탐사(주지 진성)가 4월 29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진안군내 11개읍면 347구에 전달된다. 탐사는 올해부터 매년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기증하기로 약정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 이웃 위한 518 희망의 등 밝혀요

광주 전남 NGO, 4월 30일 길거리 연등 점등 행사



광주전남지역 불교NGO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하는 518개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 4월 30일 광주 금남로에서 원각사에 이르는 구간에는 '오월은 생명꽃, 오월은 평화꽃', '세월호 희생자 아픔에 함께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등 다양한 문구가 새긴 연등이 걸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518개 희망의 등불은 광주전남지역 불교NGO 9개 단체가 연합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길거리 연등을 설치한 것으로, 광주불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흰색 등에 연꽃문양을 넣은 등을 걸고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점등식에는 광주불교교육원 이사장 행

법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효진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집행위원장 승묵 스님, 해뜨는복지센터 대표 정선 스님,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지장 스님을 비롯해 각 단체 실무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 및 점등식,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행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마음을 갖어야 한다"며 "등을 키며 이웃을 위한 마음을 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5·18 희망의등 밝히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혜사, 미얀마 아이들 위해 학교건립

(사)지구촌공생회에 학교건립기금 1억 5천만 원 후원 약정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남)는 지난 4월 26일 금산사 만월당에서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와 미얀마 사원학교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남 스님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 도감 지순 스님, 총무 지용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불교사원들이 학비가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가 사원 내부에 있는 곳이 많아 잦은 행사와 장례 의식 등으로 수업이 중단되고, 불결하고

넓은 재래식 건물들이 많아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학비가 없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혜사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그동안 정혜사의 오늘을 있게 한 어른스님들의 유지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혜사에서 사원학교 건립 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양산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더포아 사원학교의 신축 기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쓰A 수지, 생명나눔 기금 천만원 기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우가족들을 위한 치료비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4월 30일 전남대화순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가수 미쓰에이 수지 양을 대신해 수지 양의 부모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아암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생명나눔을 통해 기탁한 것. 전남대화순병원(병원장 조용범)과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은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환



미쓰A 수지의 부모와 현지 스님이 조선대병원에서 생명나눔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대 병원 불자회, 만성질환 어린이 돕기

국립 전북대 불자회(회장 이준모, 정형외과 교수)와 전주 포교사회(회장 박현용)는 4월 29일 어린이 병동 한누리학교(학교장 황형만 교수)에서 휠체어와 치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와 병원직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전북대학교 불자회는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후원하기위해 휠체어 3대(전동1대, 일반2대)와 장기입원치료 중인 어린이의 치료비 일부, 한누리 학교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 전북대에는 만성질환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4명이 치료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편)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g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giban
기giban
최고급 안정과 편안,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giban
생활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giban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